

송곡과학기술상 '신소재개발 분야', 포스텍 한세광 교수

윤 이진수 기자 | 승인 2022.02.08 18:35



포스텍 한세광 교수.

[더리포트=이진수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은 제 24회 송곡과학기술상 '신소재개발 분야' 수상자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총장 김무환)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상은 10일 KIST 서울 성북구 본원에서 개최될 제 56회 KIST 개원기념식에서 이뤄지며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송곡과학기술상은 송곡(松谷) 최형섭 박사(KIST 초대 소장, 과학기술처 장관 역임)의 업적을 기리고자 1999년에 제정되었다.

세계 정상수준의 신소재를 개발하였거나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연구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세광 교수는 생체 재료를 이용한 스마트 나노의약 4건의 상업화를 이뤄냈으며, 생체고분자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여 상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당뇨 진단 및 합병증 치료 약물전달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여 차세대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학문적, 산업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관한 혁신적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스마트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료 분야의 학술적, 산업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제 24회 송곡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한세광 교수는 "개발한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당뇨 환자를 위해 혈당을 측정하고 투약까지 할 수 있다"라며 "신소재 및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여러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